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2015년 2월 석사학위논문

> 부모교육이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 >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김 윤 숙



부모교육이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arental Education on Reducing
Disfluencies of Their Children who Stutter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김 윤 숙



부모교육이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신문자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김 윤 숙





김윤숙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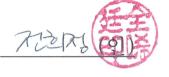
위원장 조선대학교 조교수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전환점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가. 사전 및 사후평가17
나. 부모교육18
4. 신뢰도20
가. 검사자 내 신뢰도20
나. 검사자 간 신뢰도20
5. 자료의 통계 처리20
Ⅳ. 연구결과 ····································
1. 아동의 빈도 변화21
2. 실험군과 비교군 부모의 태도 및 말 행동 변화 24
3.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아동 말더듬의
상관관계 분석 ······25
V. 논의 및 결론 ·······27
1. 부모교육을 받은 아동의 받지 않은 아동의 말더듬
빈도 변화27
2. 부모의 태도 및 말 행동척도 변화29
3. 부모태도 및 말 행동변화와 말더듬 빈도의 상관관계 30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31
참고문헌 ····································
H 근

표 목차

〈丑-1〉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초기 정보	15
⟨ጟ-2⟩	집단 간 동질성 검정 결과	16
⟨표-3⟩	연구 진행 일정	۱7
⟨표-4⟩	부모교육 절차	19
⟨ጟ-5⟩	상호작용발화에서의 말더듬 빈도 비교 결과	21
⟨丑-6⟩	상호작용발화에서의 말더듬 빈도 변화량 차이 검정 결과 2	22
⟨표-7⟩	그림책발화에서의 사전·사후 말더듬 빈도 비교 ··············	23
⟨₩-8⟩	그림책발화에서의 말더듬 빈도 변화량 차이 검정 결과 … 2	23
⟨표-9⟩	사전・사후 아동별 말더듬 빈도 변화 차이	24
⟨표-10⟩	›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척도의 사전·사후 변화 결과 2	24
⟨표-11⟩	>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의 차이 검정 결과	25
⟨표-12⟩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말더듬 빈도 변화의 상관	
	분석 결과	26





그림 목차

〈그림-1〉	두	집단	간	상호:	작용놀	<u></u> = 0] 0	게서	의 밑	발더듬	빈도	비교	•••••	22
〈그림-2〉	두	집단	간	그림	책 발	화에	서의	기 말	더듬	빈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23
〈그림-3〉	두	진단	ヹ゚゚゚゚	부모	태도	및	말 :	해 돗	변화	비교		•••••	25





부록 목차

〈부록-1〉Cooper의 만성화예측 체크리스트	. 38
〈부록-2〉부모 태도 및 말 행동 척도	• 40
〈부록-3〉유창성 만들기 시간 점검표	· 41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Education on Reducing Disfluencie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who Stutter

kim yun suk
Advisor: Prof. Shin MoonJa, PH.D.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who stutter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how the group receiving parental education differed in the frequency of children's stuttering from the group receiving no parental education and how these two groups differed in parents' attitudinal, speech, and behavioral changes.

For this purpose, three- to six-year-olds who stuttered and their parents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parental education and the control group receiving no parental education.

The group receiving parental education got information about stuttering and how to help children relieve stuttering. Before and two weeks after the experiment, the frequency of children's stuttering was measured in two activities: parent-child interactive play activity and speech activity based on a picture book in both groups.

The parents indicated their attitude, speech, and behavior on a scale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and their changes were assess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of data,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ere estimated in each group and Mann-Whitney U test, which is nonparametric test, was performed to correct the significance level along with Wilcoxon signed rank test.

To determin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differences in the scores from pretest and posttest between children in the group receiving parental education and those in the group receiving no parental education, the former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stuttering in the situations of interactive play and speech based on a picture book, whereas the latter showed no significant decrease.

While no significant inter-group difference was found in interactive play, there were significant inter-group differences in speech based on a picture book.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parental education tended to show a greater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stuttering than the control group.

Second, differences in the attitudinal and behavioral changes were measured between parents receiving parental education and those receiving no parental education in pretest and posttest. Th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tion neit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nor in the control group.

Lastly, as for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itudinal and behavioral changes and variation in the frequency of children's stuttering,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arents' changes and frequency variation in the situation of interactive play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other words, changes in the attitudinal and behavioral changes of parents led to the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children's stuttering.

Children in the group receiving parental education showed lower levels of disfrequencies than those in the group receiving no parental education in speech based on a picture book.

Since these results show the changes in children's stuttering, which were found by a session of measurement two weeks after parental education,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see if fluency is maintained over time and if it is constantly generalized in other situations.

Since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only a few children,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in more participants with the objective of generalizing the result that indirect therapy using parental education is helpful in giving intervention to preschool children.

No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requency of stuttering and detailed factors of the parents' attitude, speech, and behavior scale or to personal variables of parents and others. Accordingly, further research need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se detailed factors and the frequency of stuttering found in parent-child interaction with the aim of providing more clinically useful information.



부모교육이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arental Education on Reducing Disfluencie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who Stutte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들은 유아기(幼兒期)인 만1세 이전부터 6세 사이에 정상적으로 말과 언어를 배우게 되고 유창하게 사용하게 되지만 일부 아동에게는 말더듬이 발생하기도 한다. 말더듬은 대부분 18개월~만12세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신체·언어·신경·인지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2세~6세 사이에 시작된다(이승환, 2005; Guitar, 2006; Yairi & Ambrose, 2005).

말더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말더듬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하였다(신문자, 2011; Yairi & Ambrose, 2005). 또한, 이은주(2005)와 Guitar(2006), Manning(2010)도 말더듬은 어떤 한 가지요인이 아니라 타고난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되는 복잡한 장애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Yairi & Ambrose(2005)는 말더듬 증상이 시작된 아동들 중 80%가 치료적인 도움 없이 3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자연 회복되지 않은 아동기 말더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쟁이나 회피 등을 동반하기도 하고 학령기에 이르면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거나 말더듬으로 인해 놀림을 받기도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말더듬은 사춘기를 지내면서 자아정체감 문제 등을 수반하게 되어정상적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Starkwether & Givens-Ackerman, 1997). 그러므로 초기 말더듬 시기의 조기 중재는 말더듬 증상의 지속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영향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이은주, 2005). 특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기 말더듬 아동의 경우



부모교육을 통한 환경의 변화가 유창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Nipplod & Rudziniski, 1995). Langlois & Hanrahan & Inouy(1986)의 연구에서는 환경이 아동의 직접적인 말더듬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더듬을 악화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환경변화에는 부모의 역할이 크며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말더듬에 중요한 요인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Kelly & Conture, 1992).

초기 말더듬 아동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직접치료와 간접치료, 그리고 간접치료와 직접치료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간접적인 단계로 부모교육을 통한 중재, 그 다음으로 상호작용치료가 대표적인 간접치료이다. 그리고 간접치료와 직접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리드콤을 이용한 치료, 그리고 직접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경재・신문자・전희정, 2011, 이수복, 2014, Onslow & Packman & Harrison, 2003, Gottwald & Starkweather, 1995).

간접치료는 아동의 발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말더듬 아동의 부모에게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훈련시키는 치료이다(이수복, 2014). 직접치료는 아동자신이 치료사로부터 치료활동의 수혜자가 된다면, 간접치료는 아동에게 주 영향을미치는 부모나 가족 및 선생님 등을 통하여 아동 유창성 증진을 도모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다. 간접치료는 언어와 유창성 발달에 관련된 정보와 유창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환경 변화 즉, 부모의 양육 태도와 말, 행동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유창성 증진을 계획하게 된다(Gottwald & Starkweather, 1995). 이 중 부모교육은 만 3~5세의 초기 말더듬 아동의 치료에 있어서 환경적인요소를 개선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치료단계이다(이수복, 2014). 부모는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말더듬뿐 아니라 학령전기 아동의 말, 언어발달에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적인 측면에서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말더듬은 대부분 아동기에 시작되는 발달적 장애로 어린 시절에 시작되지만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말더듬 그리고 유창성 증진을 위한 환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은 말더듬의 예방이나 진단 또는 치료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신문자, 2002). 특히 말더듬 발생률이 가장 높은 학령전기 아동들에게 있어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말더듬증상의 유지와 완화에 큰 역할을 하게된다(옥정달, 2002). Ramig(1993)는 학령 전 아동의 말더듬 문제 개선을 위해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며, 실제로 아동 중재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중재효과의 전이와 유지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중재가 종료되고 난 후에도 급속도로 아동의 말더듬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말더듬 아동에 대한 부모의 중재는 필수적



인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옥정달(2002), 이경재(2003) 연구 외에 부모의 언어변화 또는 부모교육을 통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말더듬 아동을 위한 부모교육 효과 검증에 미비했던 부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초기 말더듬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 단 간 아동 말더듬빈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와 이 두 집단 간 부모의 태도 및 말 행동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가.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의 아동과 받지 않은 부모의 아동은 사전·사후(부모교육이후)말더듬 빈도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나.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와 받지 않은 부모의 태도 및 말, 행동은 부모교육 이후 차이를 나타내는가?

다. 부모 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아동의 말더듬 빈도변화(상호작용 놀이 상황, 그림책 발화)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가?

3. 용어 정리

가. 말더듬

말더듬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Van Riper(1982)는 '운동적 문제로 인해 음소, 음절, 단어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말더듬 본인이 반응을 함으로써 말의 흐름이 방해될 때 말더듬이 발생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신문자(1996)는 음절이나 소리의 반복, 연장이 일차적인 특징이고, 말을 유창하게 하기 위해 내적, 외적인 노력이 이차적인 특징으로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지만 말을 더듬는 사람의 방어행동, 대처기술, 주위 반응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잡하게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알지만 불수의적이고 반복적인 연장 또는 소리의 멈춤으로 인해 말할 수 없게 되는 말의 리듬장애'라고 정의하였다(Manning, 2010).



나. 초기 말더듬

아동기 말더듬 진단의 어려움은 아동의 비유창성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 비유창성인지에 대한 변별이다. 하지만 아동의 말더듬도 표면적인 특성에 따라 말더듬과 정상비유창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Yairi & Ambrose & Niermann.(1993)은 말더듬이 시작될 때 진성비유창성(stuttering like disfluencies, 이후 SLD)을 일반아동의 비유창성과 변별되는 특징으로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할지표로 보았다. 이러한 SLD의 유형은 초기 말더듬 아동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단어부분반복, 일음절 단어반복, 비운율적 발성, 긴장된 쉼 등을 들 수 있다(Yairi & Ambrose, 1997)

말더듬이 시작된 아동들은 치료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를 미루기도한다(Yairi & Ambrose, 2005). 하지만 말더듬이 시작 된 후 1년 동안 말더듬수준이계속되었을 경우 말더듬의 지속 지표로 보았던 선행연구(Yairi & Ambrose, 1999)에 따라 직접치료보다 간접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말더듬 시작 1년 이내의 아동으로 하였다.

초기말더듬(early childhood stuttering)은 Yairi et, al.(1993)에서 지적한 진성비유창성(SLD)을 보여 일반 아동의 정상적 비유창성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발달적 말더듬이 시작되고 일년 이내로 중간정도로 진행되기 이전은의 아동은 대체로 직접치료보다 간접치료로 중재가 시작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 비유창성 유형

비유창성 유형은 학자와 연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Yairi & Ambrose(2005)의 분류를 따라, 진성비유창성(SLD), 가성비유창성(other disfluencies: OD)으로 분류하였다.

1) 진성비유창성(SLD)

진성비유창성은 비정상적인 비유창성을 이야기하며 그 종류로 단어부분반복, 일 음절 단어반복, 비운율적 발성(막힘, 연장), 긴장된 쉼이 있다.

2) 가성비유창성(OD)

가성비유창성은 정상적인 비유창성으로 종류를 살펴보면 삽입어, 구 반복, 수정/





불완전한 구가 있다.

라. 부모교육

간접 치료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부모교육은 말더듬 아동의 부모들에게 말더듬의 정의와 위험요소 그리고 원인 및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을 이해시키고, 아동의 유창성을 붕괴시키는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의 비유창성 감소를 주도록 하는 교육이다. 환경변화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줄여주고 아동의 유창성 붕괴에 둔감해지며 아동과 솔직하고 쉽게 새로운 발화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모가 직접 아동과 유창성 향상 시간을 갖고 아동의 말더듬 증상이 점차 유창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이다(전희정·박정현·신문자, 2004).



Ⅱ. 이론적 배경

1.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특성

Conture & Kelly(1991)는 초기 말더듬 아동의 연구에서 말더듬 빈도와 반복의 단위, 그리고 연장과 같은 핵심행동과, 아동말더듬에 대한 부모의 걱정의 유무, 아동의 부수행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동의 비유창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정상적 비유창성과 말더듬을 변별하고 진단하며, 만성적인 말더듬에 대한 예측의 지표로 삼았다.

초기 말더듬 아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말더듬 시작과 기간, 말더듬정도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말더듬은 획일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Yairi & Ambrose, 2005). 이와 같은 의견은 말더듬 시작의 원인은 아동에 따라 다양하고, 말더듬이 시작된 초기의 경우도 '반복'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비유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재원·이은주·심현섭(2004)는 말더듬이 시작된 지 6개월 이내의 초기 말더듬아동 10명과 일반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자발화를 분석하여 비유창성의 유형과 빈도, 총 비유창성에 대한 진성비유창성(SLD)과 가성비유창성(Other Disfluencies, OD)에 대한 비율, 말더듬정도, 평균반복단위 등을 비교한 결과, 초기 말더듬아동은 운율이 깨진 발성(DP)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DP유형으로 막힘, 연장, 깨진 낱말순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 운율이 깨진 발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초기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정도 평가에서는 초기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은 시작 시기부터 약하기 보다는 중간에서 심한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말더듬은 점진적으로 출현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빈도와 말더듬 정도가 더심해지고 말더듬 초기에는 신체적이나 감정적인 긴장이 없이 쉬운 반복으로만 구성된다고 보았던 이전의 연구 Andrews & Harris(1964)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신문자(2011)는 2~6세에 해당하는 185명의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말더듬 시작 연령과 말더듬의 시작방식 그리고 시작 시 비유창성의 유형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 요소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말더듬은 2~3세에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말더듬이 점진적으로 시작되기 보다는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시작 시 비유창성의 유형은 R2(비정상적 반복)가 가장 빈번하였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작연령과 비유창성 유형, 그리고 성별과 말더듬 시작방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말더듬의 시작연령이증가 할수록 단순한 R2보다 R2와 DP(비운율적 발성)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말더듬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향은 여자아동에게서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말더듬 시작은 대체로 3세 이전 시기에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시작하는 시기부터 일반아동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며, 긴장과 부수적인 신체적 특징들 또한 감지되어 초기 말더듬 아동이 말더듬 시작 무렵부터 상대적으로 심한정도의 비유창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신문자, 2011; Yairi & Ambrose, 1992).

학령 전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인식 및 감정, 태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초기 말더듬 아동의 경우 자신의 말더듬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며, 학령기의 아동들은 말더듬을 완전하게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Bleumel, 1932; Bloodstein, 1961; Van Riper, 1963, 이지숙(2009)에서 재인용). 이렇듯 학령 전 초기 말더듬 아동들은 말더듬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좌절,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느끼지 않는다는 견해들이 많아 이러한 인식이나 감정, 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Yairi(1983)는 학령전기 아동들은 말더듬 시작 시기 쯤 아동 스스로 말하는데 어려움을 깨닫고 있다는 부모들의보고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 외 많은 연구들에서 3세 정도의 초기 말더듬아동일지라도 말더듬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DeNil & Brutten, 1991; Ambrose & Yairi, 1994).

2. 말더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말더듬은 문화와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다. 만 2~5세 사이에 출현하고, 이들 중 70~80%는 치료적인 중재 없이 회복 된다(Yairi & Ambrose, 1999).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말더듬이 생리학적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심리언어학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고하였다(이은주, 2005).

생리학적 요인을 살펴보자면 신체적인 요인과 말 산출체계의 불협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문자·이성은(2002)은 가계력에 관한 연구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가계력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 다. 가계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말더듬 성비는 3:1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많



이 나타났다. Suzanne & Roberta & Frances(2002)은 가계력이 있을 경우 남녀 비율은 1.9:1로 남녀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여아의 경우 좀 더 높은 말더듬가계력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신체적인 소인은 신경계의 구조나 기능적인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신체적인 차이들은 말 산출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내적인 모델링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말을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운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편안하게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말더듬이 출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Guitar, 2006).

신체적인 소인과 더불어 말더듬의 출현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이다. 특히, 이 시기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Starkweather & Gottwald(1990)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는 중 아동에게 느껴지는 의사소통 압박이 아동의 말더듬 시작과 발달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안정현·신지철·김향희·심현섭(2009), Zebrowski et al(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느끼는 시간적인 압박은 부모의 짧은 반응시간, 빠른 말속도, 아동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동시에 말하기 등의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 상담을 통한 환경적 압력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Yairi & Ambrose, 2005)

Kelly & Conture(1992)는 학령 전 아동의 말더듬 시작과 발달에 부모의 언어 요소와 준언어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시 부모의 말속도, 반응시간 등의 시간적인 요소와 언어의 길이와 복잡성 등의 언어적 측면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정현 외(2009)는 학령 전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상황에서 대화상대자의 조음속도와 반응간격을 조절하는 4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말더듬 발생비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말더듬 아동과 부모가 상호작용하였을 때 조음속도를 늦추고 반응간격을 길게 하면 유창성을 증진시켜주었지만 아동의 조음속도와 반응간격 변화에 의한 유창성 증진보다는 시간압박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이처럼 부모의 말속도와 초기 말더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말속도가 늦추어지면 아동의 말속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동의 비유창성이 감소한다는 것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는 말더듬 아동의 치료에 있어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시 말속도를 줄이는 것이 말더듬 아동의 유창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재, 2003).

Bernstein(1992)의 경우 일반아동과 부모 20쌍을 대상으로 상호작용교육 전 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반응시간이 길어졌을 때 아동의 비유창성이 감소하고



반응시간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말속도를 늦추었지만 아동의 말속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응시간이 말더듬 시작과 관련이 있고, 말속도 변화보다 반응 시간의 변화가 더 신속한 영향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말더듬 아동이 부모의 말속도는 모방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반응시간에 대한 변화는 즉각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반응시간 요인이 말속도 요인보다 아동의 유창성 회복에 좀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Yairi & Ambrose(2005)는 언어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말더듬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언어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말더듬이 나타난다고 보는 이유는 어린아동의 언어능력과 말더듬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말더듬이 나타나는시기가 표현언어와 수용언어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Bernstein Ratner, 1997). 이와 반대로 Nippold(1990)는 말더듬 아동의 언어능력은일반아동의 언어능력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Milles & Bernstein Ratner(2001)의 연구결과, 수용 및 표현언어 검사에서 말더듬 아동이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능력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Nippold(1990)와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말더듬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을 어떤 한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말더듬은 어느 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아니라 타고 난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언어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말더듬 아동의 중재

학령 전 말더듬 아동의 치료는 간접치료와 직접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접 치료는 아동이 직접 수혜자가 되지 않고 아동의 발화 환경을 변화시켜 말더듬 아동 유창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인, 즉 부모나 가족 및 선생님 등이 말더듬 아동과 상호작용 시 반응시간, 조음의 속도, 의사소통 행동 특성 등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직접치료는 학령 전 말더듬 아동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임상가가 제공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의 언어습관을 변화시켜 주어 아동의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치료방법이다. 부모교육의 경우 간접치료에 해당하며 말더듬 치료과정의 가장 기본적인단계로 볼 수 있다. 부모교육은 말더듬 아동의 부모들에게 말더듬의 위험요소와 말더듬의 원인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가정 내 대화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을 알려 주는



것이다(Gottwald & Starkweather, 1995).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는 아동과 가족의 개별적 요구에 맞춰 진행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접근법으로 부모가 아동의 말더듬을 조절하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은 이런 부모 태도에 신뢰를 갖고 아동 자신의 유창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이경재 외, 2011). Millard & Bernstein(2008)은 말더듬이 시작된 지 12개월된 3세~4세 아동 6명을 통해 치료실 내에서 6회기, 가정에서 6주간 진행한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를 통한 연구 결과 6명의 아동 중 4명의 아동에게 말더듬 빈도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가학령 전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알 수 있다.

Onslow et. al.(2003)는 조작적 기법(oprerant technique)으로 리드콤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행동주의적 치료로서 임상가의 감독 하에 실제 환경에서 아동의 부모에 의해 행해지는 방법으로(Onslow et al., 2003) 학령전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비율이 줄어들고, 치료 후에도 유지기준을 만족하여 학령 전 말더듬아동의 치료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말더듬 치료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학령 전 말더듬 아동의 경우 직접치료에 앞서 가족들의 의사소통스타일을 바꾸는 등 아동의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간접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아동들에게 직접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있다(이수복, 2014; Conture, 2001; Gottwald & Starkweather, 1995).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아동기는 환경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는 환경적인 요소 중 부모가 아동의 정서, 언어 신체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말더듬 아동뿐 아니라 언어발달이 지연되거나 발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른 장애로 인한 아동기의 언어치료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가 적절한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말더듬 아동의 치료 종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치료에서 부모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이수복, 2014; Conture, 2001; Gottwald & Starkweather, 1995). 말더듬 아동의 부모교육은 부모들에게 말더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의 부모와 아동 상호작용형태에 변화를 주어 말더듬 아동으로 하여금 더욱 쉽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전희정a 외, 2004). 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말더듬 아동을 돕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은주(2005)는 말더듬 치료는 말을 더듬는 사람의 말 행동 뿐 아니라 의사소통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령 전 말더듬아동의 치료에서는 어느 무엇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말더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모 상담과 부모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말더듬 아동의 유창성을 증진시키기 위 해서 부모들은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말더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아동 말더듬에 영 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요소들은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들을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가 말속도를 늦추면 아동도 말속도를 늦추게 되어 유창성이 증진되거나 시간적 압박이 감소하면서 유창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Rustin & Cook(1995)은 의사소통상황에서의 부모가 주는 시간압박은 아동의 말더듬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부모의 의사소통 압박과 말더듬의 관계에 따라 부모는 말속도를 줄이고 반응시간을 길게 하여 말차례 주고받기를 하며 상호작용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

Nipplod & Rudzinski(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말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말더듬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사소통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청자는 부모이며, 부모는 아동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역할을 강조되어 왔다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학령전 아동의 부모참여와 역할에 대해 중요하다고주장하고 있다.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들이 말더듬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말더듬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게 된다면중재가 끝난 후 말더듬이 재발한다 하더라도 치료사의 도움 없이 아동의 말더듬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을 통한 중재는 초기 말더듬 아동들에게 이루어지는 보다 간접적이고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재이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은 모든 말더듬 아동의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교육 효과로 부모들의 언어 및 태도가 변했다고하더라고 아동들의 말더듬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부모교육 이후의 단계적 치료에 대한 부모 상담을 통한 치료적 촉구가 필요 할 수 있다.



5. 부모교육효과

김문정·옥정달(2005)은 말더듬이 시작된 지 6개월 이상이며 동반장애가 없는 아동인 아동 3명을 통해 말더듬아동을 위한 부모중재 프로그램(옥정달, 2002)을 적용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말더듬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말더듬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하였다. 부모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아동의 흥분, 짜증 등 정서적인 요인들이 감소하였으며, 아동의 막힘 지속시작을 감소시켰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말더듬으로인한 아동의 신체적 수반행동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연구자들은 부모가 아동의 말더듬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더라도 말더듬의 심한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아동의 말더듬 중재에는 직접적인 중재도 중요하지만 부모교육을 통한 중재가 더 효과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연구는 아동의 일상적인 말을 녹음해 직접 들려주고 아동이 자각하게 하는 방법의설계로 이루어져 있어 본 연구의 짧은 기간 부모교육 만으로 아동의 말더듬 빈도 변화를 보고자 하는 설계방법과는 달랐다.

이경재 외(2011)는 질적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치료 경험을 한 학령 전 말더듬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말더듬에 대한 초기 반응, 말더듬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느꼈던 경험, 신뢰도와 참여자 정보 등에 대한 질문을 현상학적 이론과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들은 말더듬에 대해 초기에는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꼈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치료를 통해 그와 같은 감정이 완화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처음에 부모들은 아동 유창성 증진이 치료의 주된 목표였으나 아동의 행복한 삶이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치료를 통해 자신감정을 이해하고 말더듬과 아동에대해 적절한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어머니가 아동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말더듬 아동의 치료에서는 종합적이고, 부모가 긍정적인 책임감을 갖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볼 수 있다.

Kelly(1992)는 4세의 말더듬 아동과 그의 어머니, 그와 연령을 일치시킨 말을 더듬지 않은 아동과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말속도(speech rate)와 반응시간 (Response Time Latencies: RTL), 그리고 방해하는 행동(Interrupting Behaviors)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말속도와 방해하는 행동에서 아동 두 그룹과 어머니그룹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반응시간(RTL)은 두 그룹 모두 어머니가 자신의 말보다 아동에게 더 긴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속도에 대한 이 연구 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어머니가 더듬지 않은 아동의 어머니보다 말속도가 빠르다는 Meyer & Freeman(1985b)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Meyer & Freeman(1985)은 일반아동과 말더듬 아동 부모의 간섭이 아동의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반아동 부모가 말더듬 아동 부모보다비유창한 말에 유의하게 간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airi & Ambrose(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견해로, 말더듬 아동의 부모가 유창한 아동의 부모와 비교하였을 때 아동을 다르게 지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더듬 아동 부모가 일반아동의 부모에 비해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연구들은 부모의 언어행동 변화도 아동의 말더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았다. 안정현 외(2009)는 학령 전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상황에서 대화상대자의 조음속도와 반응간격을 조절하여 아동 말더듬 발생비율을 살펴본 결과, 조음속도를 느리게 하고 반응시간(Response Time Latencies)을 길게 해 주었을 때말더듬 발생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 말더듬 아동이상호작용 할 때 말속도를 늦추고, 반응간격을 길게 한다면 유창성을 증진시킬 수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의 조음속도나 반응간격의 변화보다는시간압박 감소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다. 초기 말더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부모가 말속도를 늦추어 말한다면 아동의 말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는 부모의 말속도가 늦추어 지더라도 아동의 말속도는 늦춰지지 않았다는 결과를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비유창성이 감소하는 것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고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령 전 말더듬 아동의 치료에서는 부모변화가 아동의 말더듬 감소에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김문정·옥정달, 2005; 이경재, 2003).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에서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치료가 성 공적이었다는 것은 많은 수의 아동이 말더듬 시작 후 처음 몇 달 안에 자연회복되었다는 사실에 영향 받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초기 치료에 대하여 비용에 대한 효과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되기도 하였다(Curlee & Yairi, 1997).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상자는 조선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말더듬 아동과 그 부모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부모는 연구에 참여 하기 전 실험집단(부모교육을 받은 집단)과 비교집 단(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선 택한 부모와 아동으로 집단별 각 5쌍으로 구성하였다. 비교집단의 경우 부모교육 일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여, 실험이 종료된 2주 후 동일한 부모교육을 제공하 기로 하였다.

가. 아동

본 연구 대상은 3~5세 말더듬 아동 5명씩(두 집단)을 대상으로 말, 언어, 인지적 인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하였다.

두 집단 대상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모나 언어치료실의 언어재활사로부터 말더듬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하였다. (2) Cooper의 만성화 예측 체크리스트(심현섭·신문자·이은주·이경재, 2013)에서 주의를 요함(7~15점) 이상인 아동으로 하였다. (3)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II, 심현섭 외, 2010) 필수 과제를 실시하여, 말더듬 정도가 '약함' 이상인 아동으로 하였다. (4) 수용 및 표현어휘력검사(REVT,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9)의 수용 및 표현어휘 검사의 환산점수가 표준편차 -1이상에 속하는 아동으로 하였다. (5) 유아발달선별검사(K-DIAL-3, 전병운·조광순·이기현·이은상·임재택, 2004)의 인지 검사 환산 점수에 10점 이상(백분위 수 25%ile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하였다. (6) 조음이나 음성의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하였다. (7) 그 외신경적, 정서적, 신체적 결함과 청력에 이상이 없는 아동으로 하였다.





아동의 초기 정보는 <표-1>다음과 같다.

〈표-1〉 아동 초기 정보

		연 성 령		가	P-FA-Ⅱ필수과제		VT 퍼센타일)	¹K-DIAL-3	²만성화체크	
		별	(개 월)	족력	점수 (말더듬정도)	표현	수용	(인지)	리스트	
	1	남	57	무	72.41 심함	10~20%	40%	22	19	
실.	2	남	66	유	100.5 심함	70~80%	70~80%	24	11	
험	3	남	62	무	14.44 약함	60~70%	80~90%	25	13	
군	4	남	53	무	43.9 중간	10~20%	30~40%	15	9	
	5	ন	64	유	21.44 약함	70~80%	60~70%	23	7	
	1	늄	70	뫄	52.48 중간-심함	40~50%	70~80%	25	23	
固	2	남	66	무	68.28 심함	60~70%	80~90%	21	22	
교	3	남	62	무	30.26 중간	70~80%	80~90%	24	11	
군	4	남	59	유	87.41 심함	20~30%	50~60%	19	20	
	5	놥	60	무	17.30 약함	10~20%	40~50%	22	7	

¹ 유아발달선별검사(K-DIAL-3)의 인지영역 환산 점수

2~6: 회복이 예측됨, 7~15: 주의를 요함/ 경계선, 16~27: 만성화 예측

나. 부모

부모 선정기준은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신체, 인지, 정서, 청각, 언어적인 문제가 없고, 말더듬 부모교육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아동의 양육자(어머니, 아버지)중 한 분으로 하였다.

다. 실험군과 비교군의 동질성 검정



² Cooper의 만성화 예측 체크리스트("예" 반응개수)

실험군과 비교군의 두 그룹 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가족력 검증을 위한 Fisher's exact test와 기술통계량에서 정규성 검정을 위한 Shapiro-wilk를 통하여 연령, P-FAⅡ(필수검사점수), REVT(표현・수용 환산점수)와 K-DIAL-3(인지 영역 환산점수) 그리고 만성화체크 리스트 점수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그룹의 동질성 검정 결과,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p>.05) 실험군과 비교 군의 집단 간 동질성과 사전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표-2> 집단 간 동질성 검정결과

			실험군		비교군	χ^2 or Z	p
성별	남자		4(80.0)		5(100.0)	7.0	>.999*
	여자		1(20.0)		-		
가족력	유		2(40.0)		1(20.0)		>.999*
754	무		3(60.0)		4(80.0)		
				M(SD)	중위수(IQ	R) 사분위수	p
연령		실험군		60.40(5.32)	60	10	.685
언녕		비교군		63.40(4.56)	62	9	.544
미리도 키스		실험군		50.54(35.95)	43.90	68.5	.628
말더듬 점수		비교군		51.15(28.25)	52.48	54.1	.903
DEV/T/へ Q		실험군		64.20(13.31)	63	23	.929
REVT수용		비교군		64.80(5.45)	68	9	.109
REVT표혁		실험군		62.60(14.96)	64	30	.503
REV I 표 언		비교군		61.80(9.36)	63	18	.554
K-DIAL-3		실험군		21.80(3.96)	23	6	.096
K-DIAL-3		비교군		22.20(2.39)	22	5	.899
만성화체크리	リムド	실험군		11.80(4.60)	11	8	.685
단경와세크다	1	비교군		16.60(7.16)	20	14	.231

2. 연구절차

가. 진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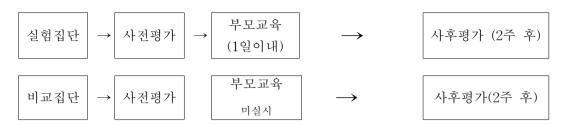
모든 연구 일정은 연구자가 각 아동의 집에 방문하여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졌다. 실험과제와 평가는 비디오녹화(삼성HMX-QF30)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선정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연구는 <표-3>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3〉연구 진행 일정



3. 실험과제

가. 사전 및 사후평가

아동의 사전·사후평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놀이, 그림책 발화를 통해 말더듬 빈 도를 측정하였고, 부모는 부모 태도 및 말 행동척도를 통해 평가 하였다.

1. 비유창성 빈도 측정

(1) 부모와의 상호작용놀이에서 말더듬 빈도

부모와 아동의 15~20분 동안 상호작용놀이(찰흙놀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아동의 발화 중 불명료한 발화와 긍정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발화(아니오, 응 등)를 제외한 200발화를 수집하였다(Yairi & Ambrose, 1999). 이 중 앞과 뒤 50발화를 제외시킨 100발화에서 말더듬 빈도를 측정하였다.

(2) 그림책발화에서 말더듬 빈도

아동에게 *글자없는 그림책*(Frog, where are you? Mayer,1969) 를 들려주고 아동이 다시 그림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명료한 발화를 제외 한 200발화를 수집하였다. 이 중 앞과 뒤 50발화를 제외시킨 100발화에서 말더듬 빈도를 측정하였다.

2. 부모태도 및 말 행동변화 척도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척도(<부록-2> 참조)는 '아동의 유창성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DVD'(이하, 부모교육 DVD)(신문자, 2002)에서 연구자가 태도와 말 행동부분을 발췌하여 따로 제작하였다. 태도 및 말 행동 변화에 대한 점수는 5점 척도 (1~5점)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부모는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하여 가정 내에서 자신의 태도와 말 행동에 대한 점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1) 내용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작한 '부모 태도 및 말 행동 변화척도'의 각 항목이 적절한지 보기 위해 내용 타탕도를 검증하였다. 검증은 말더듬 평가 및 치료경력이 3년 이상인 언어재활사 2명과 언어병리학 전공 교수 2명에게 내용타당도 평가를 받았다. 내용타당도 평가는 1~5점 척도(1점: 타당하지 않다, 5점: 매우 타당하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문항별 평균타당도는 4.48점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나. 부모교육

부모교육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말더듬에 대한 정보제공과 아동의 말더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안내받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교육 절차 및 세부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부모교육 절차

순	절차 및	·구성 내용
서	소요시간	1 0 910
1	DVD교육 ¹ (40분)	1) 말더듬 정보제공
2	부모면담 (30-40분)	·질의 응답(아동의 말더듬에 대한 궁금증, 교육내용) ·부가적 설명 및 2주 과제 안내
3	말 조절연습 (30-40분)	• 연구자와 말 조절하기 연습

^{1:} 아동의 유창성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DVD(신문자 역)

(1) DVD교육(40분)

연구자는 실험군 부모와 함께 부모교육 DVD를 시청하면서 말더듬의 정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말속도 늦추기,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등부모가 바꾸어야할 말의 형태에 대해 알려 주었다.

(2) 부모면담(30~40분)

말더듬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여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난 후 2주 동안 과제 '유창성 만들기 시간(<부록-3>참조)'에 대해 설명하였다.

(3) 말 조절연습과 부모 태도 및 말 행동 평가 연습(30~40분)

바뀌어야 하는 부모의 말, 태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설명하였다. 말속도는 초당 약 3.0음절(이경재, 2003)로 연습하였다. 부모의 평가 척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창성 만들기 시간 동안 태도(비구어적 요소- 말끝까지 들어주기, 질문 줄이기, 대화시 충분한 시간 주기)의 부분에서 적어도 3초 이상의 시간적



인 여유를 주었을 때 3점으로 한다. 그리고 말 행동(말속도 줄이기, 짧고 단순한 말사용, 부드럽고 조용하게 발하기)은 5점 척도(1점: 거의 지키지 않음, 2점: 이따금지킴(30%), 3점: 2회 이상 지컴(50%), 4점: 자주 지킴(70%), 5점: 아주 잘 지킴(90%이상) 중 하루 3번 이상 실시하였을 때 3점으로 한다.

4. 신뢰도

가. 검사자 내 신뢰도

아동의 비유창성 측정의 일관성 확립을 위해 비디오 녹화 내용 중 아동 2명의 비유창성 빈도를 연구자가 재측정하여 검사자 내 신뢰도를 확립하였다. 1차 측정과 재측정 시 비유창성의 빈도를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평가결과 100음절 의 일치율은 97.9%로 산출되었다.

나. 검사자 간 신뢰도

신뢰도는 전체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말더듬 아동 2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수집한 발화샘플에서 유창성장애 평가 및 치료경험이 있는 언어병리학 석사 1명과 연구자가 녹화된 자료를 보면서 독립적으로 전사하고, 아동의말더듬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사자 간 일치율은 95.7%로 산출되었다.

5. 자료의 통계 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기 전과 후의 아동의 말더듬 빈도차이와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척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변화에 대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효과검정은 사전에서 사후의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test를 통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모태도 변화와 아동 말더듬 빈도 변화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Spearman상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의 빈도 변화

가. 상호작용놀이 발화에서의 사전 · 사후 말더듬 빈도 비교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놀이상황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실험군아동의 빈도 차이와 받지 않은 비교군 아동의 말더듬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두 집단의 사전·사후 말더듬 빈도 변화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발화에서 말더듬 빈도 비교에 대한 결과는 <표-5>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 발화에서 말더듬 빈도는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사전 보다 사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나(Z=2.041, p<.05), 비교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상호작용 발화에서의 사전·사후 말더듬 빈도 비교 결과

집단 ₋	말더듬	빈도	중위수	(IQR)	사분 범		Z	근사유 의확률
	사전M(SD)	사후M(SD)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실험군1	14.00(5.83)	10.60(6.39)	15.00	12.00	12	13	2.041	.041*
비교군 ²	17.00(6.67)	16.80(7.82)	19.00	17.00	11	12	271	.786

 $^{^1}$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 2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 p < .05

이러한 변화에 대한 두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6>에 제시하였다. 실험군은 M=3.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군은 M=0.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군이 비교군보다 상호작용 발화를 통한 말더듬 빈도가 비교군보다 많은 감소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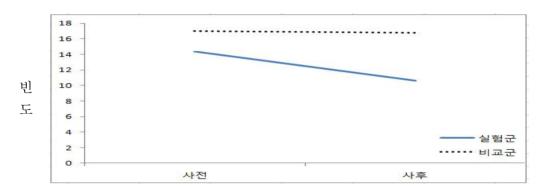


<표-6>상호작용발화에서의 말더듬 빈도 변화량 차이 검정 결과

집단	평균	평균순위 순위		의합	Mann-W	hitney U		Z	정확한 유의확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실험군	4.70	4.10	23.50	20.50	8.50	5.50	1.838	-1.476	.421	.151
비교군	6.70	6.90	31.50	34.50	0.50	5.50	1.000	-1.470	.421	.101

^{*} p <.05

<그림-1>은 상호작용놀이에 나타난 실험군과 비교군의 사전·사후 아동의 말더듬 빈도에 대한 평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1> 두 집단 간 상호작용놀이에서의 말더듬 빈도 비교

나. 그림책 발화에서의 사전 · 사후 말더듬 빈도 비교

그림책 발화에서 말더듬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림책 발화에서의 말더듬 빈도변화는 <표-7>에 제시하였다. 실험군과 비교군의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검정 결과, 두 집단 모두 사전 결과 보다사후에서 말더듬 빈도가 감소하였다. 실험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지만(Z=2.032, p<.05), 비교군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그림책 발화에서의 사전·사후 말더듬 빈도 비교 결과

집단 _	말더듬	빈도	중위수	(IQR)	사분· 범·		Z	근사유의확 률	
	사전M(SD)	사후M(SD)	사전	사후	사전	사후		五	
실험군	10.00(5.05)	6.40(5.08)	13.00	9.00	10	10	2.032	.042*	
비교군	14.20(5.81)	13.40(7.67)	17.00	16.00	10	14	816	.414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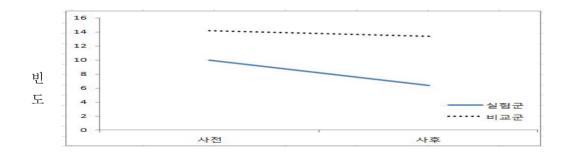
이러한 변화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는 <표-8>에 제시하였다. 실험군은 평균 M=3.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군은 M=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 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8>그림책 발화에서의 말더듬 빈도 변화 차이 검정 결과

	평균순위		순위합		Mann-	Whitney	,	7	정확한		
집단	생긴	생판군위		正刊音		U		L		유의확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실험군	4.30	3.80	21.50	19.00	6.50	4.00	-1.261	-1.786	.222	.095	
비교군	6.70	7.20	33.50	36.00	0.50	4.00	1.201	1.700	.444	.095	

^{*} p <.05

<그림-2>는 실험군과 비교군의 그림책 발화에 나타난 아동의 말더듬 빈도에 나타난 평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2> 두 집단 간 그림책 발화에서의 말더듬 빈도 비교





다. 상호작용 놀이와 그림책 발화에서의 말더듬 빈도 비교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놀이상황에서 아동의 말더듬 빈도와 그림책 발화에서 나타난 아동의 말더듬 빈도의 차이는 <표-9>에 제시하였다.

<표-9> 사전·사후 아동별 말더듬 빈도 변화 차이

		상호	작용놀이 (법	민도)	그림책 발화(빈도)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1	15	12	-3	13	9	-4	
실	2	19	18	-1	14	12	-2	
험	3	7	4	-3	4	1	-3	
군	4	20	15	-5	14	9	-5	
	5	9	4	-5	5	1	-4	
	1	21	19	-2	18	17	-1	
月	2	19	17	-2	17	16	-1	
亚	3	16	17	+1	12	10	-2	
군	4	23	27	+4	19	22	+3	
	5	6	5	-1	5	2	-2	

2. 실험군과 비교군 부모의 태도 및 말 행동 변화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 척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비교군의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10>과 같다. 실험군(Z=-1.826, p=.068>.05)과 비교군(Z=-1.414, p=.157>.05) 모두 사전 보다 사후에서 부모의 태도와 말 행동에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인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 척도의 사전·사후 변화 결과

집단	행동변:	화 점수	중위수(IQR) 사분위수 범위		Z	근사유의 확률		
	사전M(SD)	사후M(SD)	사전	사후	사전	사후		4. 年
실험군	2.46(0.47)	3.34(0.68)	2.70	3.70	.8	1.2	-1.826	.068
비교군	2.36(0.78)	2.48(0.75)	2.30	2.30	1.3	1.4	-1.414	.157

^{*} p < .05

이 같은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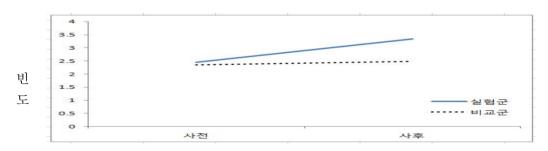
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11>과 같다. 실험군은 M=0.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군은 M=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표-11>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의 차이 검정 결과

집단	평균	순위	순역	비합	Mann-\	Iann-Whitney Z		Z	정확한 유의확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실험군	6.10	7.30	30.50	36.50	9.50	3.50	638	-1.886	.548	.056
비교군	4.90	3.70	24.50	18.50	9.30	5.30	038	-1.000	.548	.036

^{*} p < .05

〈그림-3>은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에 나타난 사전·사후 부모 대도 및 말 행동에 관한 그림이다. 실험군의 부모대도 및 말 행동 변화가 비교군보 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두 집단 간 부모 태도 및 말 행동 변화 비교

3.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아동의 말더듬의 상관관계 분석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상호작용 놀이, 그림책 발화의 말더듬 빈도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집단의 사후 평가 자료를 통한 Spearman 상관분석 검정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검정 결과는 아래 <표-12>에 제시하였다. 실험군은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상호작용 놀이(r=-.748, p<.05)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교군의 경우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상호작용놀이 그리고 그림책발화의 빈도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말더듬 빈도변화의 상관분석 결과

		상호작용놀이	그림책발화	부모 변화
	상호작용놀이	1	.966*	748*
실험군	그림책발화	.966*	1	750
	부모 변화	748*	750	1
	상호작용놀이	1	.154	112
비교군	그림책발화	.154	1	229
	부모 변화	112	229	1

^{*} p<.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말더듬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 아동의 말더듬빈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와 이 두 집단간 부모의 태도 및 말 행동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3~6세 말더듬 아동과 그 부모 10쌍으로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와 아동을 실험군으로 그리고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와 아동을 비교군으로 나누었다.

연구 방법으로 아동은 실험 전 그리고 실험이 끝난 2주 후 상호작용놀이와 그림 책 말하기 활동을 통해 말더듬 빈도를 측정하였고, 부모는 실험 전과 실험 후 부모 태도 및 말 행동 척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아동의 말더듬 빈도차이와 부모의 태도 및 말 행동 차이 그리고 아동의 말더듬빈도와 부모태도차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의 아동에게 말더듬 빈도가 두 가지 상황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량에 대한 검정결과, 상호작용 놀이에서는 유의하지 못하였고, 그림책 발화에서의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부모 태도 및 말 행동 변화는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셋째, 부모 변화와 아동의 말더듬 빈도 변화의 상관관계에서 실험군의 경우 부모변화와 상호작용놀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 말더듬빈도 변화

본 연구 결과 실험군과 비교군 아동의 말더듬 빈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두 가지 상황(상호작용놀이, 그림책발화)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비교군은 두 가지 상황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 두 집단 간 차이 검정결과, 그림책 발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변화가 아동의 그림책 발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만으



로 그림책 발화에서의 유의한 차이에 대해 논할 수 없다. 다만 부모교육을 받은 집 단의 아동들에게 말더듬 감소가 더 많았다는 것은 부모교육을 통한 중재가 이 시 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중재임을 시사한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다른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의 말더듬 정도나 개별적인 상황, 그리고 부모의 개인적 요인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집단의 각 아동별 자료와 말더듬 빈도 변화를 나타낸 <표-7>을 살펴보면, 집단의 구성에서 실험군은 심함 2명, 중간 1명, 약함 2명으로 구성되었고, 비교군은 심함2명, 심함~중간 1명, 중간 1명, 약함 1명으로 구성되어 두 집단 간 말더듬 중증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말더듬 빈도 감소를 비교했을 때에 실험군과 비교군의 중간, 약함이 심함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말더듬 중증도가 아동의 말더듬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말더듬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를 위해 각 아동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실험군 중 말더듬 빈도에 가장 낮은 변화를보인 아동 2의 경우 어머님이 동생을 출산한 직후로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밤에 잠들기 전 잠깐 동안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유창성 만들기 시간을 가졌으나 잘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아동의 경우 동생이 태어나면서 바뀐 환경적요인으로 인해 다른 아동에 비해 낮은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교군 에서는 2명의 아동이 첫 평가 시 보다 2주 후 사후 평가에서 말더듬 빈도에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 중 아동 3은 어머니의 지병으로 집 분위기가 좋지 못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4명의 형제를 아버님께서 일을 다녀오신 후 돌보아야 하는 등 환경적인 어려움 및 심리적 불안이 말더듬 빈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할수 있다. 또한 아동 4의 부모는 주말 부부이면서 맞벌이 부부인 집안환경의 문제와 유치원에서 교우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연락을 받으셨다고 한다. 이 아동의 경우현재 아동의 심리적요인 및 말더듬에 대한 인식과 친구들과의 관계 등의 요인이말더듬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실험군에 비해 비교군 아동의 상황이 좋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비교군의 말더듬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말더듬 아동에게 주위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Adams, 1993; Bailey & Baily, 1982)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 특히 어린 아동들에게 있어서 주위환경 중 가장 밀접한 환경요소는 부모이다. 그러므로 초기 말더듬 아동의 경우 부모가 가진 말더듬에 대한 태도와 말하는 속도 그리고 아동



과의 의사소통 형태 등이 아동의 말더듬을 지속 시킬 수 있는 주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Rustin & Cook,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떤 아동에게 부모교육이 좀 더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아동의 말더듬 기간과 말더듬 정도를 고려하여 부모교육과 어떤 요인이 관련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긴 시간 연구를 통해 부모교육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창성이 유지되는지 또는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보다 질 높은 부모교육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의 태도 및 말 행동척도 변화

본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짧은 실험기간과 지속적인 상담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과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주라는 짧은 기간을 이용해 부모교육효과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 이유로, 부모교육은 말더듬아동 치료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아동의 경우 부모교육을 한 후 다른 처치에 들어가야 하는 아동들도 있다. 부모교육 기간이 너무 길어져 아동 말더듬에 처치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위해 2주라는 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집단 간 부모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군 부모의 경우 사전 사후 결과에서 2명(아동1, 3)은 0.3점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3명은 부모 변화점수에차이가 없는 반면 실험군 부모의 경우 점수의 변화가 없었던 아동 2를 제외한 4명의 부모들에게 평균 1.3점 이상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아동 2와 비교군 아동 2, 5는 부모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아동의 말더듬 빈도에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에 나타난 부모의 태도와 말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12개월 이내의 초기 말더듬 아동으로 자연회복률이 높은 대상이므로 말더듬 감소가 부모교육의 효과라고만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자연회복과 부모교육에 정당화를 위한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교육의 궁극적인 이유는 아동의 말더듬 빈도의 감소뿐만 아니라 부모와 환경에 대한 변화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비록 살펴보지 못하였지만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태도적인 측면 중 일부인 아동과 상호작용에서만 살펴보았다. 즉, 부모가 말더듬 아동을 이해하고 그들 자신에게 가진



죄책감을 소거함으로써 아동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아동의 말더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어린 아동들에게 있어 부모의 의사소통태도나 행동은 아주 중요하며 부모의 생각, 행동, 말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아동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말더듬에 관한 어머니의 관심과 부정적인 반응은 아동의 말더듬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Ramig(1993)는 부모가 말더듬아동의 중재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부모들은 아동의 말더듬 상태가 악화되고 지속되어 가는 요인이 무엇인지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부모들은 아동의 중재 방법에 대한 정보와 아동의 말더듬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요소를 확인,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 두 집단 간 사전·사후 부모변화 척도 점수에서 유의한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실험군이 비교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적은 대상자 군으로 진행되어 통계적인 결과에서 유의미를 논할 수는 없다. 후속연구에서 부모 태도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척도와 아동의말더듬 빈도 변화 차이를 살펴본다면 부모교육에 대한 적절한 임상적 정보제공에도움이 될 것이다.

3. 부모태도 및 말 행동변화와 말더듬 빈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상호작용 놀이, 그림책 발화의 말더듬 빈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실험군은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상호작용 놀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군은 부모변화와 상호작용 놀이와 그림책 발화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이 말더듬 아동의 상호작용 놀이에서 말더듬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책 발화의 경우 부모의 개입이 적은 반면, 상호작용놀이는 부모의 개입이 크므로 상호작용놀이에서 부모변화가 더 많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상호작용상황에서의 발화가 그림책 발화의 길이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축된다. 발화길이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그림책은 아동의 발화가 긴 반면, 부모-아동 대화의 상호작용은 더 짧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상황에서 부모의 태도 중 말의 주고받기 반응시간을 길게하거나 아동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가 아동의 비유창성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Bernstein Ratner, 1992)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는 두 집단 간



변화 척도에 대한 통제와 부모 변수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향후 두 집단의 각각 다른 척도와 부모변수에 대한 통제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은 말더듬 아동의 치료에 있어서 부모가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으나(옥정달, 2002; 김정미 ·심현섭·이은주, 2005) 부모들이 아동의 말더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어린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령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각 개인별 변수와 부모변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부모-아동 상호작용에 나타난 말더듬 빈도와 부모 태도 및 말 행동 척도의 세부요인들과의 ·차이를 살펴 보다 정교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임상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태도 및 말 행동 변화와 아동의 말더듬 빈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연구 집단의 대상자 수가 너무 적고 말더듬 아동의 성비와 말더듬 중증도, 말을 더듬은 기간, 연령이 동일하지 않게 구성되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향후 좀 더 많은 집단으로 구성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교집단의 부모에게 실험군과 같은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태도와 말 행동 변화에 대한 노출이 될 수 있었고, 부모의 태도 및 말 행동 척도 작성 시 부모의 개인적 요인(성격, 연령 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개인적 요인, 척도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교육의 효과만을 살펴보기 위해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살펴보았으며 부모교육의 유지에 대한 결과를 이어서 진행할 수 없었다. 또한 실험군은 부모교육을 받은 반면 비교군은 실험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모교육효과 유지를 살펴보기 위해 더 많은 기간 프로그램 진행과 비교군에게도 다른 교육을 받게 하는 형평성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의 경우 부모교육 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부모가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객관적인 평가가 병행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부모의 말 행동 및 태도에 대한 척도 점수와 아동의 말더듬 빈도만을 측정하여,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었다. 후속연구로 부모 태도와 말 행동의 하위 요인과 아동의 말더듬 빈도변화 양상에 대한 관계를 살핀다면 좀 더 말더듬 빈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필 수 있 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정·옥정달(2005). 말더듬아동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특수교육저널. 6(4), 257-276.
- 김영태·성태제·이윤경(2003).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척도,
- 「PRES』.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정미·심현섭·이은주(2005).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행동 특성. 음성과학. *12*(3), 35-48.
- 변재원·이은주·심현섭(2004). 초기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 특성 연구. 언어청각장 애연구. 9(1). 1-14.
- 신문자(1996). 유창성장애의 특성 연구. 말·언어장애연구. 1, 82-103.
- 신문자(역)(2002). 아동의 유창성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DVD. (Preventing Stuttering in the Preschool Child: Logan, Utah: Utah State University.
- 신문자(2011). 아동 말더듬 시작과 관련된 요인의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6*(3), 103-113.
- 신문자·이성은(2002). 한국 유창성장애의 유전적 요인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 연구. 7(1), 155-165.
- 심현섭·신문자·이은주(2010).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Ⅱ』.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 재단.
- 심현섭·신문자·이은주·이경재(공역)(2013). *Dr. Manning의 유창성장애 (제3판)*.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 안정현·신지철·김향희·심현섭(2009). 조음속도와 반응간격 조절에 따른 말더듬 발생비율의 변화. 언어치료연구. 18(4), 134-148.
- 옥정달(2002). 초기말더듬 아동에 대한 부모중재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재(2003). 대화상대자의 말속도 변화에 따른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말속도와 말더듬 발생비울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재·신문자·전희정(2011). 상호작용치료경험을 중심으로 한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 부모의 치료경험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16, 478-493.



- 이경재·신지철·김향희·심현섭(2003). 대화상대자의 말속도 변화에 따른 말더듬 아동의 변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말속도와 말더듬 발생비율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8, 123-138.
- 이수복(2014). 초기말더듬아동의 회복여부에 따른 치료효과 예측요인에 관한 종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은주(2005). 취학 전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행동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숙(2009). 3~5세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전병운·조광순·이기현·이은상·임재택(2004). 『유아 발달 선별 검사 (K-DIAL 3』.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 재단.
- 전희정·박정현·신문자(2004a). 학령전 유창성장애 아동의 부모교육 효과: 사례연구.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언어청각임상학회.
- 전희정·박정현·신문자(2004b). 유창성 부모교육 자료집. 서울 신·언어임상연구소.
- Adams, M. R.(1993). The home environment of children who stutter.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14, 185–191.
- Andrews, G., & Harris, M.(1964). *The syndrome of stuttering:* Clinics in developmental medicine. 17. London: Spastics Society Medical Education and Information Unit in association with Wm. Heinemann Medical Books.
- Ambrose, N. G., & Yairi, E.(1994). The development of awareness of stuttering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9, 229–246.
- Bailey, A. A., & Bailey, W. R.(1982). Managing environment of the stutterer. *Journal of Childhood Communication Disorders, 6, 26–39.*
- Bernstein Ratner, N.(1992). Measurable outcomes of instructions to modify normal parent-child verbal interactions: Implications for indirect stuttering therapy. *Journal of Speech &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2, 68-78.
- Bernstein Ratner, N.(1997). *Stuttering*: *A psycholinguistic perspective*. In R. F. Curlee, & G. M. Siegel(Eds.), Nature and treatment of stuttering: New directions(2nd Eds.). BT. Boston: Allyn & Bacon.
- Conture, E. G.(2001). Stuttering: It's nature, diagnosis and treatment. Needham



- Heights, MA: Allyn & Bacon.
- Conture, E., & Kelly, E.(1991). Young stutters, non-speech behaviors during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1041-1056.
- Curlee, R., Yairi., E.(1997). Treatment of early childhood stuttering: Advances & and research need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7(3), 20–26.
- DeNil, L. F., & Brutten, G. J.(1991). Speech-associated attitudes of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60-66.
- Gottwald, S. R., & Starkweather, C. W.(1995). Fluency intervention for preschool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public school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6*, 117-126.
- Guitar, B.(2006).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3rd Ed.). BM. Baltimor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Kelly, E. M.(1992). Speaking rates, response time latencies, and interrupting behaviors of young stutterers, nonstutterers,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1256–1267.
- Langlois, A., Hanrahan, L, L., & Inouye, L. L.(1986). A comparison of interactions between stuttering children, nonstutteri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1, 273–293.
- Manning, W. H(2010). *Clinical decision marking in fluency disorders* (3rd Ed). Delmar: NY. Cengage Learning.
- Mayer, M. (1969). Frog where are you? New York: Dial Books for Young Readers.
- Meyer, S. C., & Freeman, F.(1985). Mother and child speech rates as a variable in stuttering and disfluenc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28, 436–444.
- Millard, S., Nicholas, A., & Cook, F. M.(2008).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effective in reducing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1(3), 636-650.
- Milles, S., & Bernstein Ratner, N.(2001). Parental language input to children at stuttering onse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 *44*, 1116–1130.
- Nippold, M.(1990). Concomitant speech and language disorders in stuttering children: A critique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55*, 51–60.
- Nippold, M., & Rudzinski, M.(1995). Parent's speech and children's stuttering: A critique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8(5), 978–980.
- Onslow, M., Packman, A., & Harrison, E.(2003). The Lidcombe program of early stuttering intervention: A clinician's guide. Ausin, TX: Pro-Ed.
- Ramig, P. R.(1993). Parent-clinician-child partnerships in the therapeutic process of the preschool-and elementary-aged child who stutters.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14, 226-237.
- Rustin. L., & Cook, F.(1995). Parental involvement in the treatment of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6, 127–137.
- Suzanne M. B., Roberta, L, & Frances, C.(2002). The influence of family history of stuttering on the onset of stuttering in young children. *Folia Phoniatrica et Logopaedica*, 54(3), 117–124.
- Starkweather, C. W., & Givens-Ackerman, J.(1997). Stuttering, Austin, TW: Pro-Ed. Inc.
- Starkweather, C. W., & Gottwald, S. R.(1990). The demands and capacities model II: Clinical applicatio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5, 143–157.
- Van Riper, C.(1982). *The nature of stuttering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Yairi, E.(1983). The onset of stuttering in two- and three-year-ol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45, 171-178.
- Yairi, E.(1997). Disfluency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stuttering. In R F. Curlee., & G. M. Siegel (Eds.), *Nature and treatment of stuttering: New directions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Yairi, E., & Ambrose, N. G.(1992). Onset of stuttering in preschool children: Selected Facto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782–788.
- Yairi, E., & Ambrose, N. G.(1999). Early childhood stuttering I: Persistence and recover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42, 1097–1112.





- Yairi, E., & Ambrose, N. G.(2005). *Early childhood stuttering: For clinicians by clinicians*. Austin, TX: Pro-Ed.
- Yairi, E., & Ambrose, N. G., & Niermann, R.(1993). The early months of stuttering: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521–529.
- Zebrowski. P. M., Weiss, A.L., Savelkoul, E. M., & Hammer, C. S.(1996). The effect of maternal rate reduction on the stuttering speech rates and linguistic productions of children who stutter: Evidence from individual dyads. *Clinical Linguistics and Phonetics*, 10, 189–206.





<부록-1>

Cooper의 만성화예측 체크리스트

실시방법: 3~8세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록한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동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각각의 항목을 설명해주고 부모와 의논해야한다. 적절한 칸에 표기 (√)한다.

예	아니오	모름
	ବା	예 아니오



3. 부분단어 반복이 눈에 보이는 긴장이나 스트레스와 동반되는가?		
4. 부분단어 반복이 같은 단어에서 3번 이상 일어나는가?		
5. 음절 반복의 속도가 보통 속도보다 빠른가?		
6. 종성 모음이 음절 반복에서 부적절하게 삽입되는가?		
7. 반복하는 동안 공기흐름이 종종 중단되는가?	 	
8. 연장이 1초 이상 지속되는가?		
9. 비유창성이 나타나는 동안 100단어 당 한 단어 이상에서 연장이 일어나는가?		
10. 연장이 매끄럽게 나타나는 것과 반대로 균일하지 않거 나 중단되는가?		
11. 연장이 일어나는 동안 긴장이 관찰되는가?	 	
12. 연장이 점차적으로 끝나는 것과 반대로 갑자기 끝나는 가?	 	
13. 유성음을 연장하는 동안 공기 흐름이 중단되는가?	 	
14. 말을 시작하기 전 소리 없는 쉼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나타나는가?		
15. 억양패턴이 제한적이고 단조로운가?		
16. 말더듬이 나타나는 동안 눈 맞추기를 피하는가?		
17. 말더듬이 나타나는 동안 관찰 가능하고/ 또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안면 또는 신체 움직임이 있는가?		
"예" 반응의 총수	 	

심현섭 외, 2013.



〈부록-2〉

부모 태도 및 말 행동 척도

점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점: 조절하지 않음, 2점: 조절하려 함(30%정도), 3점: 조금 조절함(50%정도),

4점: 조절함(70%정도), 5점: 아주 잘 조절함(90%이상)

(하루 2회 이상의 유창성 만들기 시간 시도, 상호작용 시 태도와 말 행동 6가지활동을

시도 했을 때 3점을 중심으로 점수를 표시 합니다)

구 분	활 동	사전	사후 (2주 후)
	1. 말 끝까지 들어주기		
1. 태도	2. 질문 줄이기		
(비구어적 요소)	3. 대화 시 충분한 시간주기		
	합 계		
	1. 말속도 줄이기		
2. 말 행동	2. 짧고 단순한 말 사용하기		
2. 필 생동	3.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하기		
	합 계		





〈부록-3〉

유창성 만들기 시간 점검표

(1주) 아동명:

	_	귉		
	요 일	횟 수	활동내용	부모변화(태도, 언어)와 '아동 반응'
1 주				
,				
2 주				
'				

